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안

- 입력 강화 기법을 중심으로

우 창 현*

- I. 서론
- II. 형태 중심 교수법
- III.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문법 표현 교육 방안
- I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제2 언어 교육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형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구조화된 입력 활동’,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 형태 중심 교수법의 여러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이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표준어로 제작된 교재를 활용한 방언 문법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특히 2장에서 논의되었던 형태 중심 교수법, 그 중에서도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하여 실제 제주 방언 시제 표현인 ‘-아시/어시-’, ‘-암시/엄시-’ 등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교육 방법

* 대구 대학교

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했던 이러한 교육 방법은 향후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문법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형태 중심 교수법, 입력 강화,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 여성 결혼 이민자

I. 서론

정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13년 현재 23만 명의 결혼 이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¹⁾ 그리고 이들 결혼 이민자의 대다수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약 5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결혼 이민자들이 지방에 거

1) 안전행정부 2013년 7월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다. 다만 안전행정부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혼인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로 구분하고 있다.

(단위: 명)

	결혼이민자	혼인귀화	소계
합계	147,591	83,929	231,520
서울	30,775	18,476	49,251
부산	6,619	3,582	10,201
대구	4,514	2,196	6,710
인천	8,486	5,293	13,779
광주	3,089	1,624	4,713
대전	3,440	1,469	4,909
울산	2,751	1,765	4,516
세종	437	168	605
경기	40,208	24,196	64,404
강원	3,865	2,217	6,082
충북	4,693	2,566	7,259
충남	7,497	3,871	11,368
전북	5,795	3,357	9,152
전남	6,861	3,436	10,297
경북	7,470	3,896	11,366
경남	9,288	5,197	14,485
제주	1,803	620	2,423

주하고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이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특히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표준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부터 이들에 대한 실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 표준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각 지방 생활에 필요한 방언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안정적으로 각 지방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방언을 교육할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기능 중심의 언어 교육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기본적인 문법 표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정확한 ‘이해’와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방언 문법을 교육할 경우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효과적인 문법 교육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즉 어떠한 교육 방법을 통해 방언 문법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최근 제2 언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태 중심 교수법(Focus on Form)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형태 중심 교수법은 최근 기능 중심의 언어 교육에서 효율적으로 문법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태 중심 교수법 중에서도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기법을 적용한 교육 방법을 고려하기로 한다.³⁾

²⁾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이영미(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김금하,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방언 병행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민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언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임형통, 「방언 노출 전략을 통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등 방언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³⁾ ‘입력 강화’ 등 형태 중심 교수법이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이는 Krashen(1985)에서 이야기하였던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충분한 입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방언을 배우는데 필요한 방언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입력 강화’를 통해 관련 방언 문법에 충분히 노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방법이라고 하겠다.⁴⁾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형태 중심 교수법, 그 중에서도 입력 강화 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방언 문법 교육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방언 문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법 표현 중 하나인 시제 표현 교육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형태 중심 교수법⁵⁾

대한 논의는 정대현, 「입력강화를 통한 한국어 문법 형태 습득 및 본문 이해 향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 정대현, 「언어지식에피소드를 통한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제30차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12; 정대현, 「본문강화가 문법 형태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형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5권 3호, 담화·인지 언어학회, 2008 12; 정대현, 「학습지 중심 형태초점교수 모형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34, 국어교육학회, 2009 7; 정대현, 「출력 기능을 통한 한국어 형태 습득 연구 - 메타말과 언어지식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12; 서종학 외 역, 『입력강화』, 한국문화사, 2011; 윤강구 역, 『Focus on Form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2언어 교육』, 인문사, 2012.를 참고하기 바란다.

- 4) 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제대로 출력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다만 Krashen,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1985.에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출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입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입력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언어 습득은 발음, 어휘, 문법 등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과 이들 언어 형식이 가지는 의미와 관련한 의미 내용 그리고 언어 사용과 관련한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통합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언어 표현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학습자의 관심을 언어 형식으로 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각각의 언어 형식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형식에 담긴 의미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형태 중심 교수법은 이처럼 의미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언어

형태 중심 교수법은 각 언어 형식이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면서도 학습자의 관심을 언어 형식에 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미 중심 교육에서 언어 형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 중심 교수법은 크게 ‘명시적인 주의 끌기(explicit attention-directing techniques)’와 ‘암시적인 주의 끌기(implicit attention-directing techniques)’로 구분된다. ‘명시적인 주의 끌기’는 다시 ‘의식 고양 과제 활동(consciousness-raising task)’, ‘간결한 문법 설명 끼워 넣기’, ‘딕티글로스(dictogloss)’, ‘입력 처리 지도(input processing instruction)’ 등으로 구분되고 ‘암시적인 주의 끌기’는 ‘인풋 홍수(input flood)’, ‘인풋 강화(input enhancement)⁶⁾’, ‘리캐스트(recast)’, ‘아웃풋 강화(output enhancement)’, ‘상호작용 강화(interaction enhancement)’ 등으로 구분된다.

‘명시적인 주의 끌기’ 방법의 하나인 ‘의식 고양 과제 활동’은 특정 문법 항목이 출현하는 문장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그 규칙을 찾아내게 유도하는 과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결한 문법 설명 끼워 넣기’는 글자 그대로 학습자가 과제 활동을 할 때 간단하게 문법을 설명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딕티글로스’는 학습자에게 문장을 읽어주고 요약하게 한 후 짝과 함께 들었던 내용을 재생하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입력 처리 지도’는 특정 문법 항목을 확실히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듣기 과제 활동을 이용하여

형식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윤강구역(2012)에 따르면 형태 중심 교수법은 크게 선행형 형태 중심 교수법과 반응형 형태 중심 교수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형 형태 중심 교수법은 미리 교육해야 할 언어 형식을 정해두고 이를 기능 중심 활동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이고 반응형 형태 중심 교수법은 미리 교육해야 할 언어 형식을 정하지 않고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형 형태 중심 교수법은 교육해야 할 각각의 언어 항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 방법으로 정확한 표현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반응형 형태 중심 교수법은 기능 중심의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에 적합한 교육 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⁶⁾ 이는 이어지는 ‘입력 강화’ 기법 중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

학습자의 입력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⁷⁾

다음 ‘인풋 홍수’는 ‘암시적인 주의 끌기’의 하나로 특정한 언어 형식을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해당 언어 형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인풋 강화’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밑줄 혹은 이탤릭체를 사용하는 등 시각적 표시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특정 언어 항목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리캐스트’는 학습자의 실수를 교사가 넘지시키고쳐서 말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출력 강화’는 학습자의 실수를 교사가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 학습자 스스로 정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강화’는 교사와 학습자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식적인 의미 교섭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의미 교섭을 통해 학습자의 주의를 언어 형식에 집중하게 하려는 방법으로 출력 강화와 리캐스트를 적절하게 혼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

형태 중심 교수법은 다시 ‘입력 강화⁹⁾’와 ‘출력 강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입력 강화’ 기법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도록 한다.¹⁰⁾

입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입력 홍수(input flood)’,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 ‘구조화된 입력 활동(structured input activities)’, ‘문법 의식 고양 과제(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입력 홍수(input flood)’와 ‘텍스트 강화(textual enhancement)’는 앞서 논의했던 ‘인풋 홍수(input flood)’, ‘인풋 강화(input enhancement)’와 일부 표현만 다를 뿐 그 의미는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구조화된 입력 활동’, ‘문법

7) 윤강구 역, 2012, 226~228쪽.

8) 윤강구 역, 2012, 228~229쪽.

9) 언어 습득을 위해 입력되어야 할 내용은 의사소통 상에서 메시지를 포함한 언어이어야 한다. 즉 입력은 일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력은 Krashen(1985)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이해 가능한 표현’이어야 한다.

10) ‘입력 강화’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효과적인 출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 고양 과제’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먼저 ‘구조화된 입력 활동’은 ‘특정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조화되어 있는 입력’으로 유의미한 정보 교환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형식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이상적인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다음으로 ‘문법 의식 고양 과제’는 ‘의식 고양 과제 활동(consciousness-raising task)’과 유사한 개념으로 긍정적 자료와 부정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되 교사가 직접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자료가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중심 활동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 의식 고양 과제’는 학습자가 놓칠지도 모르는 문법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주고 동시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기법은 특히 문법 형태에 관한 명시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유용하다. 특히 ‘입력 홍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¹²⁾

이러한 다양한 형태 중심 교수법 중에서도 처음 해당 문법 교육을 시작할 때는 학습자들이 충분히 해당 문법 표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력 홍수(인풋 홍수)’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충분히 노출된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 강화(인풋 강화)’ 기법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문법 표현 교육에 대해 학습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표현의 문법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문법 의식 고양 과제’) 적용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해당 문법 표현에 대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제주 방언의 시제 표현 교육에 이 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Ⅲ.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한 문법 표현 교육 방안

11) 서종학 외 역, 2011, 133~135쪽.

12) 서종학 외 역, 2011, 138~146쪽.

이 글에서는 국내 여성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립국어원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입력 강화 기법을 적용한 문법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 교재 중 문법 표현과 관련된 단원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원	제목	기능	문법
1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지시어로 표현하기	이에요/예요 은/는
2	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소개하기 출신국 소개하기	입니다 입니까? 이가 아닙니다
3	가방 안에 있습니다.	진술하기 위치표현하기	습니다/입니다 습니까/입니다? 이가 있다/없다 에 있다/없다
4	남편은 무엇을 해요?	직업명 표현하기 장소와 활동 표현하기	을/를 -아요/어요 에서 에 가다/오다
5	이분은 누구세요?	소개하기 경어법으로 표현하기	(이)세요 -(으)세요(높임) 과/와, 하고
6	남편 생일이예요	날짜와 요일 말하기 부정문 표현하기	에(시간) -지 않다 -겠-
7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시간 말하기 하루 일과 말하기 서술하기	부터 - 지 -지만 -아서/어서
8	배추는 얼마예요?	요청하기 구매하기 가격 말하기	에(단위) -(으)세요(명령 도
9	공원에 가서 산책했어요	과거 사실 표현하기 부정문 표현하기	-았/었 - 안 'ㄷ' 불규칙
10	김치찌개는 매워요	약속하기 제안하기 수락하기	-고(순차) -(으)니까요? 'ㅂ' 불규칙
11	주말에 운동회에 갈 거예요	미래 표현하기 반말 표현하기	-(으)ㄹ 거예요 -아/어(반말) '으' 탈락
12	문화센터에 어떻게 가야 해요?	교통 정보 구하기 의무 표현 말하기	(으)로(수단) -아야/어야 하다

13	여보세요. 김기호 씨 데이지요?	전화하기 전화받기 사실 확인하기	에게/한테 -지요?, (이)지요? -(이)ㄴ데요
14	이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초대하기 축하하기 위치 설명하기	-(으)ㄹ 수 있다/없다 -(으)로(방향)
15	저는 자장면으로 할게요	부탁하기 음식 주문하기	-아/어 주세요 -(으)르게요 (으)로(선택)
16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요	날씨 표현하기 이유 말하기	-(으)니까 -고(나열) 은/는(대조)
17	영화가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감정 표현하기 이유 말하기	무슨 -아서/어서(이유) -(으)러 가다/오다
18	빨간색 스웨터를 사고 싶어요	요청하기 희망 표현하기 색, 크기 표현하기	-고 싶다 -(으)ㄴ
19	필리핀에 소포를 보내려고 해요	의도 표현하기 우편물 보내기	-(으)려고 하다 에서 -까지
20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기호 표현하기	-(으)면서, (이)면서, (이)나

위 단위 구성을 보면 이 교재에는 경어법, 시제, 양태 표현뿐만 아니라 격조사, 보조사, 보조동사, 연결어미, 불규칙 활용 등 다양한 문법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문법 표현의 경우 정확한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수준이 초급이라고 해도 올바른 한국어 표현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법 표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문법 표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글에서는 이들 문법 표현 중에서도 9단원에 제시된 ‘시제’ 관련 문법 표현 교육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시제’는 경어법, 양태 표현 못지 않게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문법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교재 9단원을 보면 ‘과거 사실 표현하기’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시제의 경우 방언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법 항목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문법 항목이다.¹³⁾

9단원 ‘과거 사실 표현하기’에 대해 해당 교재의 교사용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교육하도록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았/었-

- ① 교재 66쪽의 장소 명사를 활용하여 질문하고 학생의 대답을 칠판에 판서한다.

[교] (극장 그림을 들고) 어디예요?

[학] 극장이예요.

[교] 극장에서 무엇을 해요?

[학] 영화를 봐요. (교사는 ‘봐요’를 판서) 아니예요. ‘봤어요’ 말해요. (칠판에 판서된 ‘봐요’ 옆에 빨간색으로 ‘봤어요’를 판서)

- ② 교사는 앞서 배운 시간 표현 어휘 중 과거에 해당하는 어휘를 칠판에 판서한다.

- ③ ②의 표현들이 모두 과거 표현이므로 반드시 문장도 과거형을 표시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봐요 -봤어요 갑니다 -갔습니다	먹어요 -먹었어요 쉽니다 -쉬었습니다	쇼핑해요 -쇼핑했어요 공부해요 -공부했습니다
----------------------------	-------------------------------	-----------------------------------

- ④ 동사 카드를 제시해주고 활용 연습을 하게 한다.

가다 ⇒ 갔어요

보다 ⇒ 봤어요

먹다 ⇒ 먹었어요

읽다 ⇒ 읽었어요

빨래하다 ⇒ 빨래했어요

- ⑤ 장소 명사 카드를 이용하여 학생들끼리 과거형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학1] 어제 무엇을 했어요?

13) 다만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직접적인 문법 설명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장에서 논의했던 형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문법 표현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학2] 쇼핑을 했어요.

- ⑥ 68쪽에 있는 연습문제의 <보기>를 함께 읽고 나서 나머지를 짝과 함께 풀게 하고 정답을 확인해준다.

[교] 교과서 68쪽 <보기>를 보세요.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학] 극장에서 영화를 봤어요.

[교] 네, 맞아요. 옆 사람하고 같이 해 보세요.

이러한 교육 방법은 명시적으로 문법을 설명하는 방법보다 쉽게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문법 교육이 기능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표현을 이해할 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구체적인 과거형에 대한 활용 연습 시 ‘시장 보기’ 등 상황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과거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과거형만을 익히기 위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이에 대해 이 글에서 제시하고 하는 형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한 문법 교육은 언어 기능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되도록 문법만을 교육하거나 연습하지 않고 주제 중심의 활동을 통해 문법을 교육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앞서 2장에서 제시했던 방법을 활용하여 표준어로 제작된 교재를 바탕으로 그리고 기능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문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4) 문법은 문법에 대한 설명 즉 문법 중심으로 교육할 때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지 않고 ‘시장 보기’나 ‘주말 계획 세우기’ 등 기능 중심의 활동 속에서 해당 문법을 교육할 때 보다 쉽게 문법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사소통중심교수법’과 같이 언어 교육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언어 기능 교육 중심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법 교육의 중요성이 더하다고 하겠다. 즉 문법은 독자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기능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한국어 혹은 방언을 배우는 것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한국어나 방언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혹은 방언 문법을 배우는 것이 해당 문법만을 배우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형태 중심 교수법이 이들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제주 방언에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어미 ‘-아시/어시-’를 통해 나타내고 현재 시제는 ‘-암시/엄시-’를 통해 나타낸다.¹⁵⁾ 먼저 ‘입력 홍수 기법’을 활용한 제주 방언 과거 시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입력 홍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9단원 문법 활동에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충분히 제주 방언 과거 시제에 노출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구성하였다. 그리고 과제 활동을 통한 문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물건 구입하기’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입력 홍수 기법을 적용한 경우>

수잔: 홍매 씨, 어제 뭐 हे수파?

홍매: 어제 친구 만났 쇼핑헤수다. 수잔 씨는 어제 뭐 हे수파?

수잔: 친구영 시장 강 과일 사수다. 홍매 씨는 쇼핑 강 뭐 사수파?

홍매: 난 아기 신이영 아기 옷 사수다. 어제 다른 건 안 사수파?

수잔: 과일이영 배치도 햏꼐 사수다.

위 예문은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해당 문법 표현 ‘-아시-’에 대한 효과적인 입력 홍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화문이다.¹⁶⁾ 즉 ‘물건 구입하기’ 기능을 익히면서 동시에 학습자들이

15) ‘-아시/어시-’, ‘-암시/엄시-’ 등의 문법 의미에 대해서는 주로 현평효, 『제주도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1985; 정승철,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 1997; 우창현, 『제주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문숙영, 『제주방언의 시제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만 ‘-아시/어시-’의 경우 ‘-앗/엇-’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형태의 경우 이형태가 나타나는 조건에 따라 두 형태 중 어느 한 형태가 선택되는 것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주 방언에서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경우 ‘-아시/어시-’만 나타나고 ‘-앗/엇-’은 나타날 수 없다. 이를 실제 교육에 반영한다면 몇 개의 명령문이나 청유문을 만들어 제시하고 이 경우 ‘-아시/어시-’를 포함한 명령문이나 청유문만 올바른 표현이 되고 ‘-앗/엇-’을 포함한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력 강화 기법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시제 표현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모든 예문에 과거 시제 표현을 포함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한 짝 활동 혹은 팀별 활동 등을 통해 학습자들은 물건을 구입하는 시점이 과거의 경우 제주 방언에서는 ‘-아시/어시-’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입력 홍수’를 통한 입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당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텍스트 강화’ 기법을 활용한 경우이다.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경우>

수잔: 홍매 씨, 어제 뭐 해수파?

홍매: 어제 친구 만났 쇼핑해수다. 수잔 씨는 어제 뭐 해수파?

수잔: 친구영 시장 강 과일 사수다. 홍매 씨는 쇼핑 강 뭐 사수파?

홍매: 난 아기 신이영 아기 옷 사수다. 어제 다른 건 안 사수파?

수잔: 과실이영 배치도 호뽀 사수다.

위 예문은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표현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위 예에서는 ‘텍스트 강화’ 기법 중 글자체를 굵게 표시하는 방법과 해당 문법 항목에 밑줄을 긋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자료는 말하기, 듣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읽기 상황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즉 말하기, 듣기 상황에서는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표현들 즉 글자체를 굵게 표시한 부분과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세계 발음하여 이 부분이 강조된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읽기의 경우는 글을 읽는 사람이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읽기 능력과 해당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 능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입력 홍수’ 기법과 ‘텍스트 강화’ 기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문법 항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6) ‘-아시-’에 대한 ‘입력 홍수’ 기법은 읽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아시-’가 들어가 있는 읽기 자료를 만들어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아시-’ 문법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해당 문법 항목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경우이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적용한 경우>

지시 사항: 여러분은 ‘-아시-’를 사용한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세요. 여러 번 읽어주어도 됩니다. 단 보여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옳고 또 어떤 문장이 그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학습자 1

1. 옳음: 어제 친구 만나수다.
1. 그름: 어제 친구 만남수다.
2. 옳음: 지난 토요일에 영화 봐수다.
2. 그름: 지난 토요일에 영화 봤수다.
3. 옳음: 어제 저녁이 친구영 시장 가수다.
3. 그름: 어제 저녁이 친구영 시장 감수다.

학습자 2

1. 옳음: 어제 한국어 배와수다.
1. 그름: 어제 한국어 배웁수다.
2. 옳음: 지난주에 고향 친구들이영 놀아수다.
2. 그름: 지난주에 고향 친구들이영 놀았수다.
3. 옳음: 지난 달에 고향 다녀와수다.
3. 그름: 지난 달에 고향 다녀왔수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적용한 활동의 경우 학습자들을 두 명 씩 짝으로 묶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짝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자기의 카드에 있는 문장을 다른 학습자에게 읽어 준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번 읽어줄 수도 있다. 상대방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역할을 하는 학습자의 경우 어떤 문장이 옳고 또 어떤 문장이 그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문법 표현이 들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적는다. 이후 읽어준 문법 표현과 들은 문법 표현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상호작용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활동을 통해 서로 해당 문법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 방언의 과거 시제 문법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현재 시제 문법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주 방언에서 현재 시제는 ‘-암시/엄시-’에 의해 나타난다.

먼저 ‘입력 홍수’ 기법을 적용한 ‘-암시/엄시-’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아시/어시-’와의 시제 의미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아시/어시-’와 같은 ‘물건 구입하기’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기로 한다.

<입력 홍수 기법을 적용한 경우>

수잔: 홍매 씨, 뭐 삼수파?

홍매: 과일 삼수다. 수잔 썬 뭐 삼수파?

수잔: 집치 담그젠 배치 삼수다.

홍매: 배치말양 다른 건 안 삼수파?

수잔: 마농도 집치 담글때 필요호연 사젠 햐수다.

위 예문은 ‘-암시/엄시-’ 표현 교육을 위해 ‘물건 구입하기’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경우이다. 그러면서 학습자들이 현재 시제 표현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모든 예문에 ‘-암시/엄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⁷⁾ 즉 ‘물건 구입하기’ 기능을 익히면서 동시에 현재 시제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모든 예문에 현재 시제 표현을 포함하였다. 학습자들은 이들 자료를 활용한 짝 활동 혹은 팀별 활동 등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시점이 현재의 경우 제주 방언에서는 ‘-암시/엄시-’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입력 홍수’를 통한 입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당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경우이다.

¹⁷⁾ 이 경우 역시 읽기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암시-’가 들어가 있는 읽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경우>

수잔: 홍매 씨, 뭐 삼수파?
 홍매: 과일 삼수다. 수잔 썬 뭐 삼수파?
 수잔: 김치 담그젠 배치 삼수다.
 홍매: 배치말양 다른 건 안 삼수파?
 수잔: 마농도 김치 담글때 필요호연 사젠 햐수다.

위 예문은 ‘텍스트 강화’ 기법 중 과거 시제 표현 교육과 동일하게 글 자체를 굵게 표시하는 방법과 해당 문법 항목에 밑줄을 긋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텍스트 강화’ 기법을 적용한 자료는 말하기, 듣기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읽기 상황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글자체를 굵게 표시한 부분과 밑줄이 그어진 부분을 상대적으로 세게 발음하는 방법을 통해 ‘말하기, 듣기’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하여 읽는 방법을 통해 ‘읽기’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력 홍수’ 기법과 ‘텍스트 강화’ 기법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제주 방언 현재 시제 문법 항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들이 ‘-암시-’ 문법 표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해당 문법 항목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경우이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적용한 경우>

지시 사항: 여러분은 ‘-암시-’를 사용한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장을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세요. 여러 번 읽어주어도 됩니다. 단 보여주지는 마세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옳고 또 어떤 문장이 그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학습자 1
 1. 옳음: 수잔 씨 지금 좀 잠수다.

1. 그룹: 수잔 씨 지금 좀 자수다.
2. 옴음: 수잔 씨 지금 공부 햄수다.
2. 그룹: 수잔 씨 지금 공부 해수다.
3. 옴음: 수잔 씨 지금 장이 감수다.
3. 그룹: 수잔 씨 지금 장이 가수다.

학습자 2

1. 옴음: 흥매 씨 지금 지춧말 배웁수다.
1. 그룹: 흥매 씨 지금 지춧말 배와수다.
2. 옴음: 흥매 씨 지금 친구들이영 놀암수다.
2. 그룹: 흥매 씨 지금 친구들이영 놀아수다.
3. 옴음: 흥매 씨 지금 김치 담감수다.
3. 그룹: 흥매 씨 지금 김치 담가수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적용한 활동에서 각각의 학습자들은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활동하게 된다. 짝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문장을 다른 학습자에게 읽어 주게 된다. 이때 필요하면 여러 번 읽어주어도 좋다. 읽어주는 것을 듣는 학습자는 어떤 문장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고 또 어떤 문법 표현이 문장 속에 들어 있는지 그 문법 표현들을 적게 된다. 이후 해당 문법 표현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해당 문법 표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IV. 결론

이 글은 문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방언을 교육할 때 형태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효과적인 형태 중심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 문법 교육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장에서는 형태 중심 교수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형태 중심 교

수법에는 ‘명시적인 주의 끌기’와 ‘암시적인 주의 끌기’가 있고 ‘명시적인 주의 끌기’는 다시 ‘의식 고양 과제 활동’, ‘간결한 문법 설명 끼워 넣기’, ‘딕터글로스’, ‘입력 처리 지도’로 구분되고 ‘암시적인 주의 끌기’는 ‘입력 홍수’, ‘입력 강화’, ‘리캐스트’, ‘출력 강화’, ‘상호작용 강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입력 강화 기법은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구조화된 입력 활동’,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다양한 입력 강화 기법 중에서도 특히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세 방법을 적용한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 교재에 나와 있는 시제 표현을 중심으로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제주 방언 과거 시제 문법 표현인 ‘-아시/어시-’ 그리고 현재 시제 문법 표현인 ‘-암시/엄시-’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방법을 적용한 제주 방언 시제 표현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강현화, 「최신 문법교수 이론의 경향과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문법교육』 11, 한국문법교육학회, 2009.
- 강현화 외, 「학문 목적의 병존 언어 교수 모델 적용 연구」,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4.
- 김금하,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방언 병행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민호,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언 교육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김성애, 『과제 중심 영어 교육』, 신아사, 2012.
- 김영주, 「한국어 교육에서의 과제 기반 형태 집중 연구 고찰」, 『이중언어학』 41, 이중언어학회, 2009.
-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1』, 한글파크, 2010.
-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2』, 한글파크, 2010.
- 서종학 외 역, 『입력강화』, 한국문화사, 2011.
- 우형식,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는 문제」,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 윤강구 역, 『Focus on Form을 이용하는 새로운 제2언어 교육』, 인문사, 2012.
- 이영미,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휘 교육 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이혜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18, 二重言語學會, 2001.
- 이정희 외, 「내용 중심 한국어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 이정희 외, 「최고급 단계 내용중심 한국어 읽기 수업의 실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3.
- 임형통, 「방언 노출 전략을 통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정대현, 「입력강화를 통한 한국어 문법 형태 습득 및 본문 이해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

- 정대현, 「언어지식에피소드를 통한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 연구」, 『제30차 추계 학술대회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년.
- 정대현, 「본문강화가 문법 형태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형사형 어미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5(3), 담화·인지 언어학회, 2008년.
- 정대현, 「학습자 중심 형태초점교수 모형 연구」, 『國語教育學研究』 34, 국어교육학회, 2009년.
- 정대현, 「출력 기능을 통한 한국어 형태 습득 연구 - 메타말과 언어지식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년.
- 채윤정 외, 「FonF 연구의 최근 동향이 한국어 교육에 시사하는 점」, 『한국어교육』 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 문숙영, 「제주방언의 시제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우창현, 「제주방언의 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정승철,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 1997.
- 현평효, 『제주도 방언 연구』, 이우출판사, 1985.
- Krashen,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1985.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expression of
tense of Jeju dialect’
- On the focus of focused on form -

Woo, Chang - Hyun(Daegu Univ.)

This study discussed to the teaching method of expression of tense of Jeju dialect with the approach of “focused on form”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are weak to grammar. The second Chapter clarified the features of focused on form and types of Input enhancement. The third chapter explained Input flood, Textual enhancement, and 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 which are very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Korean Text Book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from which I extracted tense items of grammar. I analyzed to past tense expression of ‘-asi/eosi-’ and present tense expression of -amsi/eomsi- which are mainly consisted of tense grammar of Jeju dialect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lived in Jeju.

Key words : The Education focused on form, Input enhancement, Input flood, Textual enhancement, 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s, Immigrant women

교신 : 우창현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번지

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E-mail : wuch@naver.com)

논문투고일 2013. 12. 31.

심사완료일 2014. 01. 28.

게재확정일 2014. 01. 31.